

보도해명자료 (‘15. 6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문화일보, ‘대출심사·상훈 검증’ 모두 구멍’(6.12)
기사에 대한 입장

1. 기사 내용

- 수출 사기대출 ‘후론티어’ 동탑훈장 등 훈포장 싹쓸이로 정부 상훈 검증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함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후론티어(대표 조왈홍)는 제49회 무역의 날(‘12.12.5) 동탑훈장 및 3천만불 수출의 탑(제50회) 등을 수상하였음

- 다만, 포상 당해연도 공적심사시 범죄경력, 불공정 행위 등 각종 조회결과* 문제는 없었음

* 상훈법 및 행자부 상훈지침에 근거하여,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(공정위), 체불임금 사업주·산업재해율(노동부), 범죄경력(경찰청) 등 필수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완료

- 문제가 되는 ‘수출실적’의 경우, 관세청의 수출통관실적(직수출) 및 외국환거래은행 확인서(간접수출)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당시 공적심사시에는 문제가 없었음
- 동 사안과 같이 수출실적 부풀리기 등 사기 범죄사실로 상훈을 받을 경우 상훈법에 의거, 형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3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를 할 수 있음

□ 향후,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면, 행정자치부 상훈팀에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며, 이와 별도로 우리부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기준 강화 등 자체 포상시스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음

* 훈포장 서훈 취소절차 : 범죄사실 확정판결 ⇨ 행자부 서훈취소 요청(산업부)
⇨ 국무회의 상정·의결(행자부) ⇨ 관보게재 및 서훈취소(행자부)

※ 관련 문의 : 무역정책과 조영태 과장, 조현진 주무관(044-203-4027)